



대인관계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생의 발달단계에서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에 더 그러하다.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우울을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Godlib & Kassel, 1996). 우울을 유발하는 개인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들은 대부분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나 대인관련 스트레스의 영향에 한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대인관계 양상에서 발견되는 개인의 성격특질과 우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Coyne & Whiffen, 1995).

여러 학자들은 심리학적 구인으로서 '수줍음'을 다양하게 정의해 왔고(Asendorf, 1990; Leary, 1983) 비록 각 연구들마다 통일된 개념적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수줍은 사람들은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사회적 접촉이나 우발적인 만남에서 긴장하며, 말수가 적고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의 억제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또한 수줍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긴장감 뿐 아니라 생리적인 증상, 고통스러운 자의식, 타인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에 대한 걱정, 서투름, 억제, 그리고 과묵해지는 반응을 보인다(Cheek & Kransoperova, 1999). 수줍음은 정체감 형성(Hamer & Bruch, 1994), 데이트와 또래관계(Hope & Heimberg, 1990; Jones & Carpenter, 1986), 직업 발달과 탐색(Hamer & Bruch, 1997; Phillips & Bruch, 1988) 등 수많은 발달과제의 성공적인 완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성인 적응의 측면에서 수줍음은 사회공포증과 관련이 있으며 (Bruch, 1989; Bruch & Heimberg, 1994), 수줍은

사람들은 다른 불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결혼하기 힘들다 (Sanderson, DiNardo, Rapee, & Barlow, 1990). 그리고 수줍은 남성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직업활동에서 성취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고, 중년동안 직업의 불안정을 더 많이 보고한다(Caspi, Elder, & Bem, 1988). 한편 수줍은 여성들은 결혼과 양육, 가사일에 있어 더 전통적인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고, 아이 양육 후 직업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확률도 낮다(Caspi et al., 1988).

위와 같이 수줍음이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에서 수줍음이 초래하는 특정한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줍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기-비난적인 사고(Bruch, Gorsky, Collins, & Berger, 1989), 주관적 불안(Garcia, Stinson, Ickes, Bissonnette, & Briggs, 1991), 신체적 각성(Bruch et al., 1989), 행동적 억제(Bruch et al., 1989; Cheek & Buss, 1981)와 연관된다. 이러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로 인해 수줍은 사람들은 거꾸로 자신의 사회적 수행 능력을 낮게 평가하게 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보호적인 반응을 하며(Meleshko & Alden, 1993), 시선 접촉을 회피하기도 한다(Garcia et al., 1991). 수줍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익숙치 않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긴장이나 초조함을 느끼고 과묵해지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 경향이 함께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회기술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잘 노출하지 못하며 따라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감과 통제감이 떨어지게 된다.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

은 수줍음이 우울증(Alfano et al., 1994; Joiner, 1997), 낮은 자존감(Cheek & Melchior, 1990), 부정적 인지유형(Alfano et al., 1994), 고독감(Cheek & Busch, 1981) 등과 관련있다고 보고하였다. Joiner(1997)는 수줍음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우울증상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Alfano 등(1994)은 수줍음과 우울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제안하고 검증했는데, 수줍은 집단은 수줍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하고 더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가지고 있었고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를 귀인양식이 매개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수줍은 집단과 우울한 집단의 귀인양식을 비교한 Bruch와 Belkin(2001)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집단은 대인관련, 성취관련 사건에 모두 부적응적인 귀인양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줍은 집단은 부정적인 대인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부적응적인 귀인양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수줍은 사람들이 제각기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동기 수준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는데, 즉 수줍은 것은 반드시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Cheek과 Buss(1981)는 사교성(sociability)을 타인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고, 혼자 있기 보다는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한 후, 수줍으면서도 사교성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접근하려는 욕구와 거절을 회피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교성이 수줍음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감 사이의 관계를 중재할 것으로 보고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수줍음과 사교성이 모두 높은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더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행동의 억제를 보였

다. 후속연구들은 수줍음과 사교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으나(Arkin & Grove, 1990; Asendorf et al., 1993) 수줍음의 갈등모델에 내재한 이론적인 관점은 계속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Cheek과 Melchior(1990)는 수줍음의 갈등모델을 정교화하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줍은 사람들의 대인관계 행동을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였는데, 즉 수줍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기대나 실제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에서 동기나 목표의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Arkin 등(1986)은 승인을 추구하는 동기와 불승인을 회피하는 동기 사이의 긴장에 주목하였으며, Wolfe, Lennox 및 Cutler(1986)는 잘 어울리는 것(getting along)과 더 우월해야 한다(getting ahead)는 사회적 목표 사이의 갈등에 주목하였다.

Cheek과 Kransnoperova(1999)는 대학생의 40-50%가 자신이 수줍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다수 집단 내에는 수줍음의 증상뿐 아니라 사회적 동기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수줍은 사람들 내에서 사교성, 의존성, 그리고 사회적 회피의 광범위한 개인차가 보고되어 왔으며, 따라서 개인이 선호하는 혹은 습관적인 대인관계 양식의 개인차로 인한 수줍음의 하위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철수 모델(withdrawal model)에서는 수줍음을 억제, 과묵, 그리고 사회적 회피와 동등하게 묘사하며, Caspi 등(1988)은 수줍은 아동을 Horney(1945)의 대인관계 양식 중 하나인 '세상으로부터 멀어짐(moving away from the world)'으로 설명하면서 수줍음과 철수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어도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으로 철수된 아동 모두가 수줍은 것은 아니며(단순히 사교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래에게 거부당한 것일 수도 있다), 수줍은 아동 모두가 사회적으로 철수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의 수줍음 관련 문헌들에서, Lewinsky(1941)는 수줍은 사람들 다수가 사회적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은 '어울리기 위해 따라간다(going along to get along)'라는 의존적 대인관계 양식이라고 강조했으며, 몇몇 연구(Arkin et al., 1986; Meleshko et al., 1993)에서도 보호적인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 양식이 수줍음의 지배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수줍은 사람들은 권위적인 인물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관점을 바꾸거나,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Turner, 1977). 이러한 대인관계양식은 Horney의 '멀리 떨어짐 또는 격리(moving away)'보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감 또는 접근(moving toward)' 유형과 닮은 것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내부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강박적 동조(compulsive compliance)'를 보인다. Cheek 과 Kransoperova(1999)는 이러한 수줍음의 두가지 개념이 각각 수줍음의 하위 유형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 모두가 부분적으로 옳다고 하였다. 즉, 수줍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불안정성과 신경증적 갈등을 느끼지만,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개선하려는 시도로 상이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철수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것이다.

수줍은 사람들의 내적 갈등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Bruch 등(1999)은 관계의존적인 특성을 가지는 성격특질인 관계지향성

(sociotropy)을 수줍음 문제의 가능한 중재변인으로 보고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수줍음과 관계지향성은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긍정적/부정적 사고의 비율과 외로움에 각각 주요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줍으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와 의존성이 함께 나타날 때 대인관계에서 더욱 더 부정적 사고의 비율과 외로움이 증가하였다. '관계지향성'은 Beck(1983)이 제안했던 우울취약성 중 하나로, 친밀감, 의존, 보살핌에의 욕구로 인해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맺지만, 타인과의 애정어린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타인에게 사랑받고 돌봄을 받고 싶은 강한 바람과 기대가 있는 동시에 거부되고 버려질 것에 대해 예민하고 두려워한다. 따라서 타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타인의 거부와 애정철회를 과장되고 왜곡되게 받아들여 쉽게 상처를 받음으로써 정서적 우울을 경험하기 쉽다고 한다(오현주, 1997).

한편 1990년대 이후 몇몇 연구에서는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관련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있을 때 우울감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변인이다.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Joiner(1997)는 수줍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 한해서 우울에 취약해진다고 하였으며, 수줍은 사람들은 친밀감을 얻기 위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부재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그 결과 우울해진다고 하였다. 김미숙(1997)은 수줍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수줍음은 우울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Thoits(1985)는 사회적인 관계가 적응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완충물로 기능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 및 근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제공받는 지지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지각되는 지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Furman & Buhrmester, 1992), 특히 청소년기의 친구 지지는 가족과의 관계와 다른 상호의존적인 관계로서 친구 지지를 통하여 사회정서를 충족받아 사회적 행동을 발달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대체로 안정적인 요인인데 비해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보다 변동적이며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행동에 따라 더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수줍은 사람들의 우울에 더욱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줍음과 관계지향성의 결합이 개인 내에서 갈등을 일으켜 우울감도 증폭될 것이라는 상호작용효과 가설을 검증할 것이며, 또한 수줍은 사람이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의존적,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그로 인해 우울해질 것이라는 관계지향성의 매개효과 가설을 검증해볼 것이다. 또한 가족과 친구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를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이들 각각이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효과 또는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환경에서 수줍음이라는 성격특질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부적응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에게서 어느 정도의 수줍음은 오히려 적응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면도 있으나 남성인 경우 수줍음은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문화적인 기대에 위배되는 면이 많아 더욱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었다. 국내에서 수줍음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고 대체로 아동 및 중고등학생 대상의 연구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수줍음이 성차와 상호작용하여 인기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다(김근영과 윤진, 1995). 즉, 여학생의 경우 수줍음이 많은 집단이 오히려 또래로부터 인기가 많았던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수줍음이 적은 집단이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보고는 수줍음이라는 성격특질이 성별에 따라 상당히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남녀 집단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의 K대학, 용인의 H대학 춘천의 H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총 40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남자는 209명, 여자는 198명으로 비슷하였고, 3학년과 4학년이 전체의 73.7%를 차지해 고학년의 비율이 높았다.

## 평가도구

### 수줍음 척도.

본 연구에서는 수줍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긴장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을 갖고, 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반응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Cheek & Buss, 1981), 수줍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14문항,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는 「개정판 Cheek과 Buss의 수줍음 척도(Revised Cheek & Buss Shyness Scale; Cheek & Melchior, 1990)」를 김근영(199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의 어려움 / 새로운 상황에서의 어려움' 등 수줍음을 느끼는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여 자신이 얼마만큼 수줍음을 느끼는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점수의 합을 수줍음 점수로 사용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89였다.

### 관계지향성 척도.

관계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83) 등이 개발한 SAS(Sociotropy-Autonomy Scale)를 보완, 수정한 「PSI(Revised Personal Style Inventory; 1994, Robins et al.)」를 사용하였다. PSI는 Beck이 제안한 우울취약성인 관계지향성과 성취지향성을 6점 척도로 측정하는 48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PSI의 표준화 연구(Robins et al., 1994)에서 신뢰도 계수는 관계지향성이 .88, 성취지향성이 .86이었고 재검사 신뢰도는 관계지향성이 .80, 성취지향성이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윤현수(2000)가 사용한 척도에서 관계지향성을 측정하는 24문항만을 뽑아 본 연구자가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관계지향성 척도는 '타인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염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의존'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황윤경(1995)이 수정하여 표준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을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4가지 형태로 나누어 측정하며 총 24문항,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독립적으로 측정하였으며, 4가지 하위척도들의 점수를 모두 합한 것을 각각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 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 계수는 .96이었으며,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 계수 또한 .96이었다

### 우울 척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마다 4개의 문장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이었다.

## 연구절차

수줍음 척도, 관계지향성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우울 척도를 포함하여 총 10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대학생에게 실시하였고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10.0을 사용하여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AMOS 4.0을 사용하여 변인들 모두를 투입하여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보고, 각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 결 과

####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성별 분석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을 나누어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 수줍음, 관계지향성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우울에 대해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고, 친

구의 지지와 가족의 지지는 모두 우울에 대해 부적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수줍음은 관계지향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 수줍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의존적인 성향 또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의 지지와 수줍음간의 관계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부적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가족의 지지의 경우 남학생 집단에서는 수줍음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수줍음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게 보고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수줍음과 가족의 지지 사이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이 성별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수줍음, 관계지향성, 사회적지지 변인은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울의 경우에만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t=-2.99, p<0.01$ )

표 1.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표

	남학생 집단(N=209)					여학생 집단(N=198)				
	1	2	3	4	5	1	2	3	4	5
1. 수줍음										
2. 관계지향성	.30***					0.44***				
3. 친구지지	-0.29***	0.06				-0.18*	0.01			
4. 가족지지	-0.20**	0.05	0.56***			-0.09	0.05	0.64***		
5. BDI	0.35***	0.34***	-0.32***	-0.24**		0.18*	0.23**	-0.28***	-0.24**	
평균	40.96	92.21	95.74	100.27	8.17	40.73	94.46	96.02	101.32	10.19
(표준편차)	(8.55)	(12.43)	(14.55)	(16.11)	(7.07)	(8.06)	(14.05)	(14.79)	(16.13)	(6.53)

\*\*\* p<.001 \*\* p<.01 \* p<.05

주. BDI : Beck 의 우울 척도

수줍음, 관계지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수줍음, 관계지향성,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남녀 집단 모두에서 첫 단계에서 수줍음을 투입한 결과 수줍음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관계지향성,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를 동시에 투입하였는데 남녀집단 모두에서 관계지향성과 친구의 지지 변인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었지만 가족의 지지 변인의 예측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우울에 대한 분석에서 가족의 지지 변인

은 제외하였다.

수줍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와 매개효과

수줍음과 관계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표 3), 상호작용효과는 여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수줍음이 많으면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고 관계의존적인 특성이 있을 경우 우울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관계지향성이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표 4), 매개효과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

표 2.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			
	$\beta$	$R^2$	$R^2$ Change	$F$ Change	$\beta$	$R^2$	$R^2$ Change	$F$ Change
1 수줍음	.35 ***	.12	.12	28.53	.18 *	.03	.03	6.79
2 관계지향성	.31 ***				.22 **			
친구지지	-.24 **				-.20 *			
가족지지	-.09	.26	.14	13.00	-.12	.14	.14	8.01

\*\*\*  $p < .001$  \*\*  $p < .01$  \*  $p < .05$

표 3. 수줍음 관계지향성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			
	$\beta$	$R^2$	$R^2$ Change	$F$ Change	$\beta$	$R^2$	$R^2$ Change	$F$ Change
수줍음	.35	.12	.12	28.53 ***	.18	.03	.03	6.80 *
관계지향성	.26	.18	.06	15.68 ***	.19	.06	.03	5.82 **
수줍음 × 관계지향성	-.41	.19	.01	.48	1.47	.10	.04	7.08 ***

\*\*\*  $p < .001$  \*\*  $p < .01$  \*  $p < .05$



표 4. 관계지향성의 수줍음과 우울에 대한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		
		$\beta$	$R^2$	F	$\beta$	$R^2$	F
1단계 수줍음	우울	.35***	.12	28.53	.18*	.03	6.80
2단계 수줍음	관계지향성	.30***	.09	20.383	.44***	.20	47.24
3단계 수줍음	우울	.27***	.18	23.12	.10	.06	6.39
관계지향성		.26***			.19*		

\*\*\* p<.001 \*\* p<.01 \* p<.05

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회귀계수가 첫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 집단에서는 관계지향성의 매개효과 뿐 아니라 수줍음의 직접효과도 유의미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수줍음의 직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관계지향성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줍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의 지지의 상호작용효과와 매개효과

수줍음과 친구의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표 5),

상호작용효과는 남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수줍음이 많고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더욱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표 6), 매개효과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회귀계수가 첫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더 적게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친구의 지지의 매개효과 뿐 아니라 수줍음의 직접효과도 유의미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수줍음의 직

표 5. 수줍음 친구의 지지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			
	$\beta$	$R^2$	$R^2$ Change	F Change	$\beta$	$R^2$	$R^2$ Change	F Change
수줍음	.35	.12	.12	28.53***	.18	.03	.03	6.80*
친구의 지지	-.24	.17	.05	12.99***	-.25	.10	.07	13.25***
수줍음 × 친구의 지지	-.85	.18	.01	4.47*	.31	.10	.00	.45

\*\*\* p<.001 \*\* p<.01 \* p<.05

표 6. 친구의 지지의 수줍음과 우울에 대한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		
		$\beta$	$R^2$	F	$\beta$	$R^2$	F
1단계 수줍음	우울	.35***	.12	28.53	.18*	.03	6.80
2단계 수줍음	친구의 지지	-.29***	.08	18.94	-.18*	.03	6.75
3단계 수줍음	우울	.28***	.17	21.58	.14	.10	10.23
친구의 지지		-.24***					

\*\*\* p<.001 \*\* p<.01 \* p<.05

접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에 관계지향성,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검증

마지막으로 변인들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 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학생 집단에서,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를 관계지향성,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모형1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그림 1). 모형1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19.79$ ,  $df=7$ ,  $CFI=.997$ ,  $NFI=0.995$ ,  $TLI=0.991$ ,  $RMSEA=0.094$ 여서  $RMSEA$  수치가 다소 높은 것 이외에는 비교적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가설로 변인들의 매개효과 없이 각각의 변인이 우울에 단순효과만 미치는 모형을 설계하여 비교해본 결과,  $\chi^2=57.96$ ,  $df=9$ ,  $CFI=0.998$ ,  $NFI=0.986$ ,  $TLI=0.972$ ,  $RMSEA=0.123$  등으로 매개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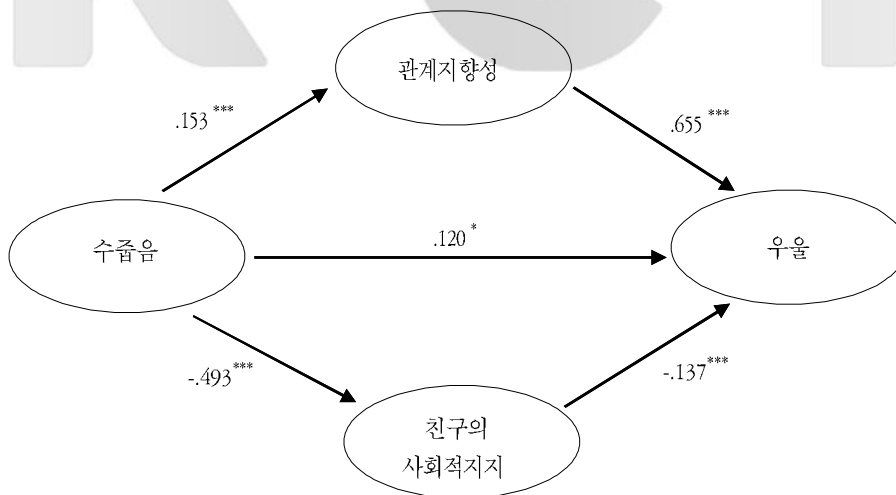


그림 1.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를 관계지향성,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모형 (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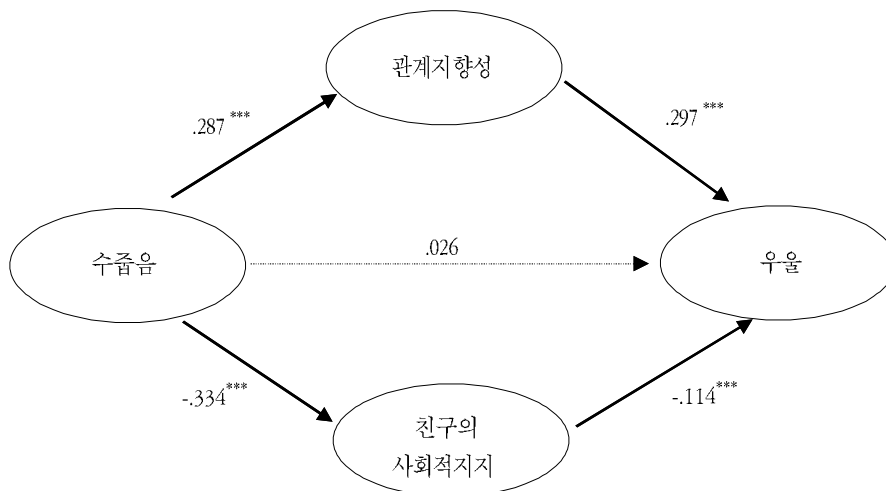


그림 2.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를 관계지향성,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모형 (여학생)

여학생 집단에서도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를 관계지향성,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는데,  $\chi^2 = 11.81$ ,  $df=7$ ,  $CFI=0.999$ ,  $NFI=0.997$ ,  $TLI=0.996$ ,  $RMSEA=0.059$  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나 수줍음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가설로 변인들의 매개효과가 없이 각각의 변인이 우울에 단순효과만 미치는 모형을 설계하여 비교해본 결과,  $\chi^2=64.18$ ,  $df=9$ ,  $CFI=0.986$ ,  $NFI=0.984$ ,  $TLI=0.968$ ,  $RMSEA=0.176$  등으로 매개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매우 낮았다.

### 논 의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을 나누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줍음, 관계지향성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우울에 대해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고, 친구의 지지와 가족의 지지는 모두 우울에 대해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수줍음은 관계지향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 수줍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의존적인 성향 또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의 지지와 수줍음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수줍을수록 친구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의 지지의 경우에는 남학생 집단에서만 수줍음과 부적 상관이 유의미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여학생의 경우 수줍은 성격이 가족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수줍을수록 가족 내에서조차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줍음과 관계지향성,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가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수줍음은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두 번째로 투입된 관계지향성, 친구의 지지 변인 역시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집단 모

두에서 가족의 지지는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가족의 지지 수준보다는 친구의 지지 수준이 정서적인 안정에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친구의 지지는 우울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로부터의 적절한 지지와 존중,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면 그 자체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받고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게 되며, 대인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가치감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친구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존중,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는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가질 수 있는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다가, 사회관계에 대한 욕구 또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친구의 지지에 비해 대체로 안정적인 요인이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행동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울감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이 친구나 선후배관계 등 대인관계를 확장해가면서 그 속에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가족으로부터는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에 한정되어 있는 점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수줍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줍음과 관계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여학생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수줍음과 관계지향성이 모두 높을 때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인 접근·회피 갈등을 일으켜 더욱 우울해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수줍음과 관계지향성의 상호작용으로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사고, 외로움이 증가된다는 선행연구 결과

(Bruch et al., 1999)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남녀 집단 모두에서 관계지향성은 수줍음과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지향성은 일종의 성격특성이기는 하나, 애초에 Beck(1983)에 의해서 우울의 한 취약성으로 제안되면서 대두된 특성이기 때문에 수줍음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Check(1999) 등은 수줍은 사람들이 불안정성과 신경증적 갈등을 느끼게 되면서 대인관계에서의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고, Lewinsky(1941)도 수줍은 사람들 다수가 사회적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은 어울리기 위해 따라간다(going along to get along)라는 의존적 대인관계 양식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설명들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한편 거절에 예민하다고 하는 '관계지향성'의 특성과 상당부분 겹치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수줍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줍음과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남학생 집단에서 유의미했다. 즉, 남학생의 경우 수줍으면서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더욱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oiner(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Joiner(1997)는 수줍은 사람들은 사회적 행동이 억제되어 있어 친밀감을 얻기 위한 접근이 어려우며, 사회적 지지의 부재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 결과 우울해진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를 친구의 지지가 매개하는 효과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수줍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통해 외부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우울해지는 경향성이 시사되었다.

경로모형에서는 남녀 집단 모두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를 관계지향적인 성격특질과 친구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매개하는 모형이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다만 남학생 집단의 경우, 수줍음과 우울의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하여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지지 변인이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 집단에서는 수줍음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관계지향성 및 사회적 지지 변인이 완전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긴장을 느끼고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의 역제를 보이는 수줍은 성격은 직접적으로 우울과 관련되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수줍음 자체가 우울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아마도 여학생의 경우 수줍은 성격이 친구들 사이에서의 수용이나 인기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국내의 연구 중에 여학생의 경우 수줍음이 많은 집단이 오히려 또래로부터 인기가 많았던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수줍음이 적은 집단이 또래로부터 인기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김근영과 윤진, 1995), 이러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줍은 여학생들은 수줍음 그 자체로 인해 우울해진다기보다는 수줍음 경우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인관련 스트레스에 취약한 관계지향적인 성격이 동반되는 경향이 많고, 친구로부터 적절한 정서적, 평가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많아 그로 인해 우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줍음 변인 자체보다는 관계지향성과 사

회적 지지 변인이 우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줍은 남학생들의 경우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거나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적게 지각하는 경향이 많아 우울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줍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울해질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성의 경우에 수줍음을 더욱 부정적인 특성으로 여기고, 여성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줍음은 긍정적인 특성으로 여기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우선 수줍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울해지는지 부분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수줍은 사람들은 관계지향적인 성격특성 즉, 관계에서 과도하게 의존적이고 순종적이며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어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에 민감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줍은 성격으로 인해 폭넓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사회적 지지 자원이 부족하기 쉽고 그 결과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수줍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즉, 여성에게서는 수줍음은 관계지향성, 친구의 지지를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에게서 수줍음은 우울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울의 취약성으로서 더욱 그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남성의 수줍음이 더욱 더 부정적인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차후 수줍음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차를 고려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이론이며 많은 관련연구가 축적된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부정적인 귀인, 역기능적 태도, 비합리적 신념 등)과 생활 스트레스의 영향을 무시하고, 수줍음이라는 성격특질이 우울과 갖는 관계와 관계지향성, 사회적 지지 등 대인관계적 요소만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격, 인지, 환경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기타 연령층에 적용, 일반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다른 연령층 및 대학생 이외의 집단에서는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근영, 윤진 (1995). 수줍음과 대인관계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6(1), 90-99
- 김미숙 (1997). 수줍음,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 제작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현수 (2000).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현주 (1997). 자기비판적 우울 취약성과 의존적 우울 취약성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순목 (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Alfano, M. S., Joiner, T. E., & Perry, M. (1994). Attributional style: A mediator of the shyness-depression relationship?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287-300.
- Arkin, R. M., & Grove, T. (1990). Shyness, sociability, and patterns of everyday affili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273-281.
- Arkin, R. M., Lake, E. A., & Baumgardner, A. B. (1986). Shyness and self-presentation. In W. H. Jones, J. M. Cheek, & S. R. Briggs (Eds.), *Shyness: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 (pp. 189-203). New York: Plenum.
- Asendorff, J. B. (1989). Shyness as a final pathway for two different kind of inhib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481-492.
- Asendorff, J. B.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 250-259.
- Asendorff, J. B., & Meier, G. H. (1993). Personality effects on children's speech in everyday life: Sociability mediated exposure and shyness-mediated reactivity to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072-1083.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Clayton & J. E. Barre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290).

- New York: Raven.
- Bruch, M. A. (1989). Familial and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social phobia: Issues an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34-47.
- Bruch, M. A. & Belkin, D. K. (2001). Attributional style in shyness and depression: Shared and specific maladaptive patter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247-259.
- Bruch, M. A., & Gorsky, J. M., Collins, T. M., & Berger, P. A. (1989). Shyness and sociability reexamined: A multicomponent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904-915.
-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55-168.
- Bruch, M. A., Rivet, M. K., Heimberg, R. G., Hunt, A., McIntosh, B. (1999). Shyness and sociotropy: additive and interactive relations in predicting interpersonal concerns. *Journal of Personality*, 67, 373-406.
- Caspi, A., Elder, G. H., & Bem, D. J. (1988). Moving away from the world: Life-course pattern of sh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24-831.
- Cheek, J. M., & Busch, C. M. (1981). The influence of shyness on loneliness in a new sit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572-577.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heek, J. M., & Kransnoperova, E. N. (1999). Varieties of shyness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In L. A. Schmidt, & J. Schulkin(Eds.) (1999). *Extreme fear, shyness, and social phobia: origins, biological mechanisms, and clinical outcom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eek, J. M., & Melchior, L. A. (1990). Shyness, self-esteem, and self-consciousness. In H. Leitenberg (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pp. 47-82). New York: Plenum.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yne, J. C., & Whiffen, V. E. (1995). Issues in personality as diathesis for depression: The case of sociotropy-dependency and autonomy-self-criticism. *Psychological Bulletin*, 118, 358-378.
- Furman, W., & Buhrmester.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arcia, S., Stinson, L., Ickes, W., Bissonnette, V., & Briggs, S. (1991). Shyn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in mixed-sex dya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5-49.
-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 Hamer, R. J. & Bruch, M. A. (1994). The role of shyness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in

-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436-452.
- Hamer, R. J. & Bruch, M. A. (1997). Personality factors and inhibited career development: Testing the unique contribution of shy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382-400.
- Hope, D. A., & Heimberg, R. G. (1990). Dating anxiety. In H. Leitenberg (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ve anxiety* (pp.217-246). New York: Plenum.
- Horney, K. (1945). *Our inner conflicts*. New York: Norton.
- Joiner, T. E., Jr. (1997). Shyness and low social support as interactive diatheses, with loneliness as mediator: Testing an interpersonal-personality view of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86-394.
- Jones, W. H., Briggs, S. R., & Smith, T. G. (1986). Shynes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9.
- Leary, M. R. (1983). *Understanding social anxiety*. Beverly Hills, CA: Sage.
- Lewinsky, H. (1941). The nature of shynes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32, 105-113.
- Meleshko, K. G. A., & Alden, L. E. (1993). Anxiety and self-disclosure: Toward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000-1009.
- Philips, S. D., & Bruch, M. A. (1988). Shyness and dysfunction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59-165.
- Robins, C. J. & Luten, A. G. (1991). Sociotropy and autonomy: Differential patterns of clinical presentation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74-77.
- Sanderson, W. C., DiNardo, P. A., Rapee, R. M., & Barlow, D. H. (1990). Syndrome co-morbidity in patients diagnosed with a DSM-III-Revised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308-312.
- Thoits, P. A. (1985).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3-111.
- Turner, R. G. (1977). Self-consciousness and anticipatory belief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 438-441.
- Wheaton, B. (1985). Medels for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 Wolfe, R. N., Lennox, R. D., & Cutler, B. L. (1986). Getting along and getting ahead: Empirical support for a theory of protective and acquisitive self-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56-361.

원고접수일 : 2005. 7. 5

게재결정일 : 2006. 5. 2



## Relationship between Shyness and Depression: Mediating Effects of Sociotropy and Social Support

Ka-Hye Oh

Chang-Yil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hyness and depression, and possible moderating or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otropy. It was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each personality-interpersonal variables including shyness, sociotropy, social support predict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and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yness and depression were tested, for each sex groups. In result, shyness, sociotropy, social support from friends predicted depression significantly, but social support from families didn'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sociotropy were significant in both groups, and so were the interaction effects of shyness  $\times$  sociotropy in female group and shyness  $\times$  social support in male group. Path analysis revealed that shyness-depression relationship is mediated by sociotropy an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in both male and female group and the direct effect between shyness and depression was significant in only male group.

*Keywords* : shyness, depression, sociotropy, social support